

광주 군 공항 이전 첫 주민설명회 무산

“설명회 장소 제공 않겠다” “자료집도 받지 않겠다”

후보지 4곳 주민들 강한 반발에 국방부 ‘당혹’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직접 주민 설명회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전 후보지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방부의 첫번째 공식 설명회임에도, 설명회 개최 뿐 아니라 장소 제공도 하지 않고 설명회 자료집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서다. 이번 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자료집을 출간하고 설명회에 나서려던 국방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방부 요청에 따라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곳 모두 반대한다고 회신했다.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모든 설명회 개최와 설명책자 배부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군 공항 이전문제에 거론됐던 특수성을 반영할 때 이러한 설명회 등은 무안군 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설명회 개최 등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기 위

한 절차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안군은 더 나아가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 관련 설명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군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영암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암군은 “군 공항 이전 반대는 영암군, 군의회, 6만 군민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설명회를 여는 것도, 개최하더라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지역민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주민 마찰 우려를 들어 설명회 자료집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남·신안군도 군 공항 이전 자체를 반

대하는 만큼 설명회 개최·설명회 참석·설명자료 배부 등이 불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

국방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데 따라 직접 설명하겠다는 추진해온 첫 공식 자리로, 설명회에 앞서 군공항 이전 사업 개요와 이전 후보지에 주어지는 지원사업비 내역 등이 담긴 소책자·팸플릿 등도 이번 주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 지역 후보지들의 반대로 국방부 설명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진행 일정 및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사업비, 추가 지원책 등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 남북합의 이행보다

인도적 지원에 초점 불만

북측이 지난 23일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남북 민간단체와 실무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인 남북합의 이행보다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협력사업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올해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이하 남북추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방북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선양 실무협의에는 남북 조성우·한충목 상임대표 등 10명, 북측 양철식 6·15 북측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해외측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외 사무국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북측은 협의에서 현 남북관계를 ‘교착국면’으로 진단하고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 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근본문제를 의면하고 우회하는 방편으로 애국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남북추위는 전했다.

한 상임대표는 “북측과 교착을 푸는 해법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며 “북측은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이 국면을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가 개성공단 재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언급에 대해서도 “왜 그런 전제를 해야 하는지”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개성공단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남북추위는 설명했다. 남북추위는 또 김강산 관공 재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금강산 방문사업을 제안했고 조만간 북측과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복 입은 6·25전쟁 전사·실종 미군 유가족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실종자 장병들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유가족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한복 체험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北변화 이끌어갈길 기대”

“북한 핵무기 갖고는 변영 못 해”

“미일 동맹은 역대 변영 초석”

日방문 사흘째 아베와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도쿄 모토야카사키(元赤坂)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이 8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고 치켜세우면서 나라를 발전시키

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서는 변영하지 못 한다”며 “(김 위원장은) 핵으로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계속 제기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납치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다. 꼭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역대 변영의 초석이라며 일본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를 포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한 조정을 했다”며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면회해서 가족들을 격려해 용기를 줬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은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쌍방과실’ 줄인다

직진차로 좌회전·좌회전차로 직진 가해자 100% 과실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이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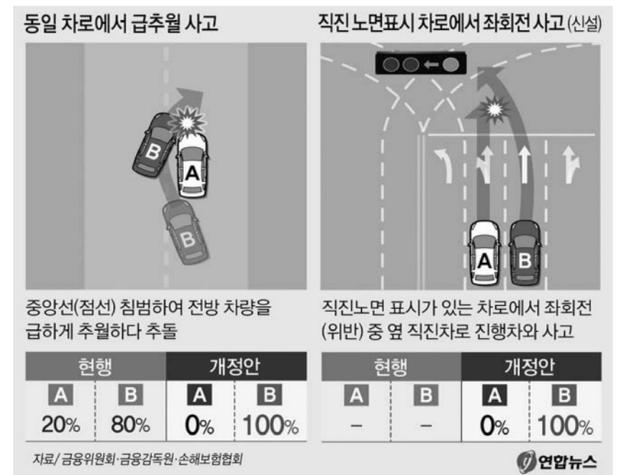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임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려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으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게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연합뉴스



임야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사정상 급매할, 4,500만원(일시불)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H.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교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참고·사무실 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동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감정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굴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정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이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복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출몰 7억2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길,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담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정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신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접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접 330㎡ 은행4억 포함 승계매 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텔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병2 거실로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이이유철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